

김태흠 제39대 충남도지사 당선



승리의 환호 김태흠 당선인 부부가 당선 확정 직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을 미래 대한민국 발전 핵심으로 육성할 것”

총 46만8658표 득표…53.87%

윤석열 정부와 유기적 협력 강조

도내 5개 권역별 발전 공약 제시
서부 해양산업·혁신도시 탄력 기대

충남도민들은 충남의 새 대표 일꾼으로 김태흠을 선택했다.

지난 1일 실시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흠(59)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당선인은 총 46만8658표(53.87%)로 양승조 현 충남도지사를 6만7350표 차로 제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김 당선인은 당선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며 충남의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도민들께서 성원과 지지를 해준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이라며 ‘약속한 일을 해내라는 도민들의 명령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특징과 특색을 살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빨 빠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당선인이 지난 2일 내포신도시 보호원을 찾아 참배하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김 당선인은 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 강한 추진력으로 중앙정부와 원활하게 소통해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오겠다”며 “앞으로 펼쳐질 이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과 지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홍성·예산 ‘내포혁신도시 완성’

▲천안·아산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조성 ▲공주·부여·청양 ‘문화명품관광도시’ 조성 ▲계룡·논산·금산 ‘국방특화 클러스터’ 유치 등을 권역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핵심공약으로 ▲성환종축장부지 자유경제개발 특구 지정 ▲충남형 대통령주거모델 ‘리브투게더’ 추진 ▲종합돌봄 시스템 ‘맘투게더’ 구축 ▲지방은행·기업금융은행 설립 ▲농어민 정년연금제도 ▲서산공항 건설

▲충청내륙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한편 충남교육감 선거에서는 김지철 현 교육감이 당선돼 3선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육감 당선인은 34.78%(16만 5996표)의 득표율로 27.60%(13만 1744표)를 얻은 이병학 후보를 7.18% 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시장·군수 선거에서는 ▲박상돈(72·현 천안시장) ▲최원철(57·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동일(73·현 보령시장) ▲박경귀(62·전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이완섭(65·전 서산시장) ▲백성현(62·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오성환(64·전 당진시 경제산업국장) ▲이응우(65·전 육군 대령) ▲가세로(66·현 태안군수) ▲박범인(62·전 충남도 농정국장) ▲박정현(57·현 부여군수) ▲김기웅(64·전 서천수협조합장) ▲이용록(61·전 홍성부군수) ▲김돈곤(64·현 청양군수) ▲최재구(53·현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당선됐다.

/김혜동 khd1226@korea.kr

6.1 지방선거

당선자 핵심공약	2면
당선자 지역별 공약	3면
교육감·도의원 당선자	4면
지방은행·기업금융은행 설립	5면
시장·군수 당선자	

제39대 충남도지사 당선 소감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김태흠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기간 함께 경쟁을 펼쳤던 양승조 후보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양 후보께서 제시한 좋은 정책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 김태흠에게 보내주신 성원은 다른 아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요, ‘반드시 그 일을 해내라’는 도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김태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을 받아들이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저 김태흠, 당당하게 세워주신 충청의 아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원팀이 되어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김태흠답게 늘 앞장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충남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특장과 특색을 살리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빨 빨르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건강을 챙기고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산적한 숙원사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한 마음으로 충남의 새 역사를 함께 씁시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 당선인 김 태 흠 올림

디지털 산업 기우고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김태흠 당선인 핵심 7대 공약



- 1 충남 산업·교통지도 개편
- 2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확대
- 3 어린이·학생 복지 지원 확대
- 4 지역경제·골목상권 활성화
- 5 문화관광·레저산업 육성
- 6 충남 농민연금 도입
- 7 산업단지 탄소중립 실현



김태흠 제39대 충남도지사 당선인은 “강력한 추진력과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충남을 대한민국의 핵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8조 원 대의 국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기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당선인이 제시한 주요 7개 공약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충남 산업·교통지도 개편을 위해 김 당선인은 100만도시 천안·아산을 첨단 산업과 광역교통을 결합시킨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환종축장 부지를 자유 경제개발 특구로 지정하고 과감한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사업을 위한 전용 특구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게임 관련 산업 육성방안도 내놨다. 천안·아산 지역에 전국적인 게임대회 개최를 위한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니콘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충남의 산업·교통지도를 바꿀 SOC 공약도 눈에 띈다.

김 당선인은 GTX-C 노선을 천안역·아산까지 연장하고 서울~충남을 연결하는 M버스를 도입하는 한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을 확대 한다.

충남형 세대통합주거모델인 ‘리브투계더’ 사업이 대표적이다. ‘리브 투계더’ 사업은 노인, 청년, 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어우러진 세대통합형 거주형태다.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을 연계한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주 세대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교통카드 지원 연령도 현재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역 간 어르신 문화교류를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확충, 장애인 돌봄 강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셋째, 어린이·학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른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형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종합돌봄시스템인 ‘맘투

굵직한 SOC사업 눈에 띄지만

촘촘한 소외계층 공약도 돋보여

수소에너지 전환 등 환경개선 의지

은행 설립이 눈에 띈다. 김 당선인은 “충청권이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충청권에 공약한 지역금융전문은행도 설립을 추진, 은행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도 약속했다.

다섯째, 충남 문화·관광·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이를 통해 서해안을 국제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충남 관광 육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관광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지역별 관광정책을 통합 관리·육성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태안을 국제수준의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산 공항을 서해안 중심 공항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 속칭 플라잉카)의 4대 관문을 충남에 조성키로 했다.

총 연장 78.6km에 이르는 충청내륙 철도 건설도 관광활성화 분야 공약으로 제시됐다.

여섯째, 농업농촌과 4차산업을 결합 시켜 충남을 ‘대한민국 농정 1번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업인 정년제·연금제 도입 추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집합 시범 단지 추진 ▲충남형 스마트 팜 청년창업·보육 교육 확대 ▲농어촌 주거공간 재정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의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수소 에너지로 전환시켜 단계별로 탄소배출을 감축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도내에 위치한 총 29기의 화력 발전소 중 14기가 2023년까지 단계별로 폐쇄된다는 정부 계획과 맞물렸다.

수소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약으로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진흥원 신설이 포함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전환교육도 제시됐다.

/김혜동 khd1226@korea.kr



김태흠 당선인 주요약력

- 제 19·20·21대 국회의원(보령·서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국무총리실 행정관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 공주고등학교

계터’를 구축한다. 통합형 교육 포털 정보시스템은 학교와 학원시설, 공공 커뮤니티센터 등의 수업시간 및 하교·하원시간, 학원차량 운영 여부와 운행 동선을 한데 모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제각각으로 파악이 어려웠던 각종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학부모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빅데이터와 AI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하교·하원 이후 이동 동선 제공 등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또 보육시설의 아침·점심반 시간을 연장하고 보육료 지원 수준도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충남형 온라인 교육플랫폼인 ‘드림투게더’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넷째,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주력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지방

온라인 무료강의 확대·수도권 출퇴근 교통비 지원

생활 밀착형 7대 공약

- 세대 허문 통합주거모델 눈길
육아 포털정보시스템도 구축
일과 관광을 한번에 ‘워케이션’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발표된 김 당선인의 다양한 공약 중 7가지 생활밀착형 공약을 소개한다.

첫 번째 생활밀착형 공약은 충남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드림투게더’ 구축이다.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입시부터 취

업까지 취약계층 자녀에게 생애주기별 인기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어르신들의 지역체험 기반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두 번째로 선보였다. 김 당선인은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자신에게는 자신과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르신들의 삶을 온전히 어르신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도가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에도 ▲노인·청년·신혼부부와 아이들이 어우러진 통합형 주거공간 제

공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어르신 주요 공약으로 소개했다.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두 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학기 초가 되면 학부모는 자녀의 돌봄을 해결하기 위해 약 일주일 동안 밭물을 팔며 학원 수업시간, 학원차량 운행여부, 운행시간 및 동선을 일일이 확인하는 고충 겪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포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녀의 하원시간·수업시간·차량동선 등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 아침·저녁반 시간 연장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보강하

겠다고 했다. 또 김 후보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대해 보

육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철도교통비를 지원하는 공약 또한 천안·아산 직장인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천안에서 서울역까지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 KTX 30일 정기승차권을 발급할 경우 약 26만 원이 드는데 여기에 최대 25% 철도교통비 지원을 받으면 약 19만 5000원으로 연 7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일과 휴양을 겸하는 ‘워케이션’ 조성도 약속했다.

급격히 상승한 배달비에 대해서도 맞춤 공약을 선보였다. 최근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중고거래 앱이나 온라인 등에서 배달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민관협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당선인은 “이번 생활밀착형 공약 시리즈는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만들 어낸 결과물이다”라며 “도정 또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끊어 도민들의 오감을 만족하는 실용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서해안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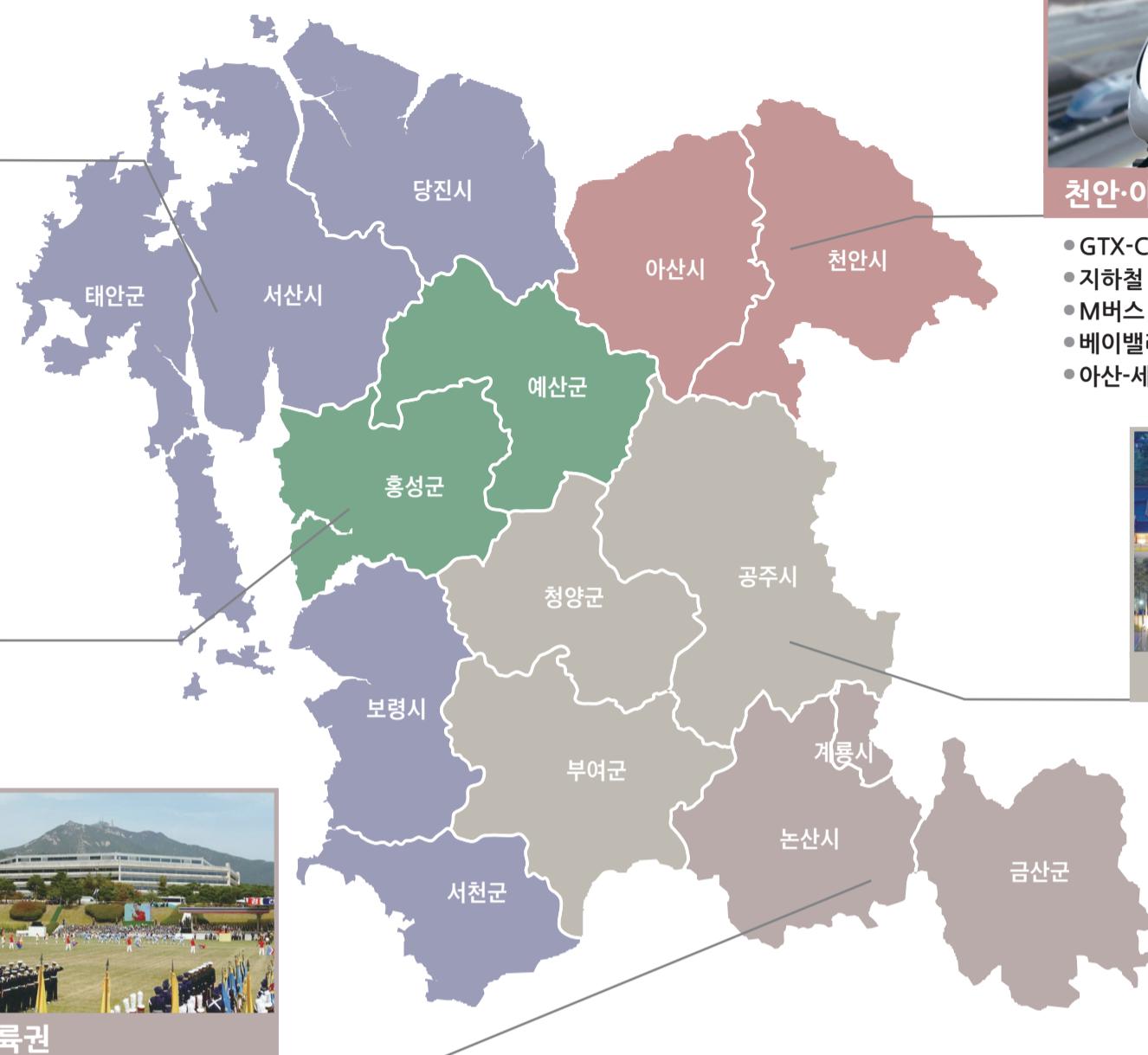
- 보령·태안 섬 크루즈 운행
- 섬 국제비엔날레 개최
- 안면도 꽃박람회 재개최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 서천 글로벌 생태모델로 육성



내포신도시권

-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유치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 대학병원 신설·종합병원 유치
- 동물바이오, 백신특구 조성

충남 5개 권역별 핵심공약



내륙권

- 육사, 국방부 이전 유치
-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 충남 남부출장소 설치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국립승격



천안·아산권

-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 지하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 M버스 천안-서울 노선 신설
- 베이밸리(Bay Valley) 조성
- 아산-세종 간 연결도로 신설



백제문화권

- 부여 백제문화복합단지 조성
- 공주 스마트 백제체험마을 조성
- 청양 생태 국가산업단지 유치
- 제2 금강교 건설
- 금강권역 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디지털수도·혁신도시 완성 등 권역별 균형발전 ‘방점’

지역별 공약

김 당선인은 천안·아산권, 내포신도시, 서해안권, 내륙권, 백제권 등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공약을 제시했다. 중부권 성장을 이끄는 혁신도시 완성, 지역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지역별 핵심 공약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천안·아산권

천안·아산 지역공약의 핵심은 ‘디지털 수도’이다. 김 당선인은 이 두 지역을 첨단기술과 광역교통망을 결합시켜 수도권을 뛰어넘는 디지털수도로 육성시키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e-스포츠 산업 등 디지털 혁신기업 유치로 천안·아산을 충남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지하철 1호선 독립기념관 연장 ▲M버스 천안-서울 노선 신설 ▲천안 역사 및 역세권 복합 개발 ▲e-스포츠 프로게임 창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조기 해제 ▲성환종종축장 용지 ‘자유경제특구’로 지정 ▲(안서동에)대학로 조성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확충 ▲남부권 광역도로망 ▲천안시 일자리 통합센터 설치 ▲천안문화예술센터(문화관) 조성 ▲소재·부품·장비 특구 조기 추진 ▲천안 키즈파크 설치 ▲충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산 공약은 ▲베이밸리(Bay Valley) 조성 ▲아산 북부권 일대 10만

도시 건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설치 ▲AI기반 미래차(전기차 등) 산업 중심하브 육성 ▲도고에 순환형 셔틀열차 중심역 설치 ▲아산-세종 간 연결도로 신설 ▲아산 서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시설 확충,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재활전문병원 건립 ▲생활안전·재난방지 클러스터 조성 ▲아산 키즈파크 조성 ▲둔포면 일부 평택지원법에 편입 등이다.

◆내포신도시권

내포신도시는 행정이 중심되는 복합신도시로 육성한다.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 약 38만평에 이르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포신도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기준 3개 기능군(탄소중립, R&D, 문화체육)에 국한시키지 않고 지원수와 예산규모가 큰 기관 위주의 유치전략을 펼친다.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에 AI허브 등 미래기업을 유치하고 대학병원과 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에는 동물바이오, 백신특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이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군인 만큼 1차 산업에서 나아가 바이오 분야까지 축산업의 가능성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서해안권

보령해저터널 개통, 가로림만 횡단연륙교건설, 국도 77호선 연장 등 충남

서해안의 관광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을 기반으로 해양거점 레저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보령과 태안의 섬을 잇는 크루즈를 운영한다. 원산도에서 출발해 삽시도, 장고도 등 섬과 섬을 연결하는 크루즈를 도입해 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령신항은 관광, 레저, 크루즈 기능을 포괄하는 다목적 기능형으로 개발하는 한편, 원산도와 삽시도 등 주요 섬에서 국제비엔날레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치한다.

도지사 취임 직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단을 즉각 발족한다. 안면도 꽃 박람회의 전통을 잊고 규모를 확대해 화훼농가를 돋고 관광객을 유치, 태안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산 공약인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당선자는 “국내 최초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가로림만이 국내 1호 국가해양정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에는 유네스코 도시로서 글로벌 생태모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반으로 서천브라운필드 복원사업, 습지복원센터 건립, 토양연구센터가 어우러진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생태환경도 지역성장

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서천군에서 증명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서산-태안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이 서해안권 공약에 포함됐다.

◆백제문화권

부여, 공주, 청양 지역을 백제문화권으로 분류해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부여에는 백제문화복합단지와 백제문화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동묘 역사관광지(충화면 소재) 일원에 300실 규모의 백제한옥리조트 건립을 제안했다.

또 복합캠프타운, 레저시설을 만들고 공주에는 스마트 백제문화 자연체험 마을을 만들어 어린이, 학생, 청소년들이 백제의 문화를 일상에서 배울 수 있는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금강권역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도 백제문화권 공약에 포함됐다. 금강권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을 토대로 첨단ICT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관광 체험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청양군 청남면 일원에는 생태 국가산업단지 재유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초 3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도청 유치를 추진했다가 탈락한 청남면 일원에 금강과 칠갑산의 자연환경을 반영한 30만평의 생태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제2 금강교 건설도 눈에 띈다. 현 금강교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60m, 2차로 규모의 대체건설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내륙권

계룡, 논산, 금산 지역을 내륙권으로 분류하고 국방인프라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육사이전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점을 감안해, 전국 최고의 국방인프라를 보유한 충남의 이점을 내세워 육사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계룡대, 국방대학교, 삼군본부 등 국방인프라와 연계한 육사이전주진위의 활동을 적극 독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비 무기체계인 군수 물자,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등 생산 중심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공약에 포함됐다.

내륙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가칭 ‘충남 남부출장소’도 설치겠다고 약속했다. 출장소에는 인삼, 국방, 산림, 환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국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당선자는 “금산 인삼 산업의 산업화,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군 산하 재단법인을 국립으로 승격시켜 국가 지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도민과 함께 꽂피운 70년…더 큰 미래로 ‘비상’

도의원 당선인 (제12대 도의회)

총 48명 도의원 중 33명이 새 얼굴
김석곤 최다선·지민규 최연소 눈길

충남도의회 제12대 의회를 이끌어갈 얼굴들이
가려졌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43명, 비례의석 5명 등 모두 48명의 역군들이
뽑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결과 지역구 의
석 43석, 비례대표 의석 5석 가운데 국민의힘이¹
지역구 33석과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더불어민주
당은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의석 2석을 차지
하며 제12대 도의회에 입성했다.

이번 도의원 당선인 중 다선에 성공한 의원은
15명으로, 나머지 33명은 초선의원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제11대 의회 성과를 잘 마무
리하는 동시에 12대 도의회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기) 총원 48명
국=국민의힘(36명)
민=더불어민주당(12명)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당선인

김지철 현 교육감 3선 성공
3대 무상교육 핵심공약 완성
“도민 참여하는 충남교육 목표”



임 기간 중 실시된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를 수상한 점도 주효
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
보는 당선 소감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행복한 충남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년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 참여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
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당선인은 공주사범대학교 영어교
육과를 졸업 후 태안여중, 천안여중, 천안
중앙고, 합덕농공고, 성환고, 덕산고 등에

‘미래교육 한발짝 더’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당선인이 3선에 성
공했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 당선인은
33.79%의 득표율로 각각 27.29%, 22.48%의
표를 얻은 이병학·조영종 후보를 따돌리고
충남교육감으로 당선됐다.

이는 김 당선인이 선거 기간 정책 대결을
주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재

서 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들과 소통했
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충남지부장
을 역임한 바 있으며, 충남교육위원회 제5
대 교육위원과 도의회 제8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목표로 내세운
3대 무상공약(무상 교육·급식·교복)을 지난
임기에 완성했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
모든 원생에게 교육비를 추가지원하면서 전
국 최초 유·초·중·고 전체 무상교육과 급식
을 이뤄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
대운영했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두드림학교’를 전체 초·중학교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교권상담 대표전화를 전
국최초로 개설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과 학생인권의날(7월 10일)도 지정했다.

“서해안 중심도시 만들 것”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국·53·(전)부장판사

□공약 : ▲보령·대전·보은 고속도
로 개통 ▲보령 세종을 잇는 충청
문화산업철도(보령선) ▲스마트팜을
통한 대중국 농수산물 수출 기지화
▲장항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
립공원 조성 ▲서천 스마트 해양바
이오밸리 조성

당선소감

“보령서천, 서천보령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겠습니다. 보령에 대해서는 해양관광 그리고 서천에 대해
서는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좋은 정치,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겠다
는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공감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220만이 선택한 ‘일꾼’…풀뿌리 민주주의 꽃 피운다

충남 기초단체장 당선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지역 일꾼들이 뽑혔다. 후보들은 6월 2일 당선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인수 준비에 들어갔다. 지방선거 당선인 임기는 7월 1일부터 4년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국·72·(현)천안시장

천안시장 박상돈

□공약 : ▲4차산업 관련 첨단국가산단·배후 뉴타운 조성을 통한 일자리 폭탄 ▲독립기념관 문화성지 조성 ▲도시재생 2.0 “동·서 모두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교통혁신 2.0 “편리한 교통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역 연장 추진



□국·57·(전)20대, 21대 정진석 국회의원 보좌관

공주시장 최원철

□공약 :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 촌 조성 ▲제2금강교 임기내 착공 ▲금강국가 정원 등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 ▲0세~18세 무상교육 및 모자보건센터 도입 ▲세종시 인구 끌어들일 세종시 주변 전원주택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국·73·(현)보령시장

보령시장 김동일

□공약 : ▲보령아산병원 기능 강화 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전통시장 현대화 단지 조성 ▲대천천 일대 생태환경 복합문화여가시설 조성 ▲원산도 중심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



□국·62·(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아산시장 박경귀

□공약 :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아산 ▲도·농 상생 및 균형 발전하는 행복 도시 아산구현 ▲문화·체육 활력 도시 아산 ▲세계로 뻗어가는 경제 수도 아산 ▲그늘 없는 복지 도시 아산



□국·65·(전)서산시장

서산시장 이완섭

□공약 : ▲차세대 항공 교통 실증센터 유치 ▲서산민항, 수도권 전철 서해안선 유치, 가로림만 해양정원 신속추진 ▲일반산단 조성 및 우량기업 유치 ▲종합문화예술회관이 포함된 컨벤션 센터 조기 신축 ▲국제 크루즈선 유치 및 대산항 활성화



□국·62·(전)주택관리공단 사장

논산시장 백성현

□공약 : ▲새로운 논산 성장 동력의 기반 구축 ▲농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 (6차 산업 시대) ▲논산의 새로운 관광종합개발 완성 ▲도시균형 개발 ▲소외 없는 이웃 걱정 없는 복지



□국·65·(전)육군 대령

계룡시장 이응우

□공약 : ▲두계천 생태수변공원 조성 및 관광벨트화 ▲역사·문화 체험관광 랜드마크 조성공약 내용 펼치기 ▲계룡대와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 ▲장수도시 “Blue Zone 계룡” 추진



□국·64·(현)국민의힘 충남도당 부위원장

당진시장 오성환

□공약 : ▲확실한 경제회복으로 당진 경제 대도약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 ▲안전하고 늘 푸른 환경도시 조성 ▲문화·관광·예술·스포츠의 도시기반 확충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어촌 환경 조성



□국·62·(현)국민의힘 충청남도당 부위원장

금산군수 박범인

□공약 :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만들기 ▲경제가 살아나는 금산 만들기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중흥과 세계화 촉진 ▲건강하고 즐거운 금산 만들기 ▲청렴하고 일 잘하는 금산 군정 만들기



□민·57·(현)부여군수

부여군수 박정현

□공약 : ▲지역특화·신산업 육성, 새로운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부여형 참좋은 학교 운영, 미래인재 양성 ▲농촌·농민의 삶 희기적 개선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 등 촘촘한 생활돌봄서비스 ▲읍면별 특화사업·농촌협약, 모두가 잘사는 마을공동체



□국·64·(현)자)해양선박 대표이사

서천군수 김기웅

□공약 : ▲누구나 살고 싶은 서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농어가 소득 증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천!! ▲청정 서천군의 청정 군청!!



□민·64·(현)청양군수

청양군수 김돈곤

□공약 :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 ▲건강 100세 복지 모델 창출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 ▲군민 삶의 질 향상



□국·61·(현)충청경제사회연구원 원장

홍성군수 이용록

□공약 : ▲지속 가능한 투자집중 살아 움직이는 지역경제 ▲농어민이 주인 되는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관광, 체험, 예술이 있어 찾아오는 문화도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홍성 구현 ▲읍·면별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국·53·(현)국민의힘 충남도당 전략기획위원장

예산군수 최재구

□공약 :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중심 ▲예우 받는 어르신, 소외없는 복지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시대 창출하는 예산군 ▲신도청시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 원도심 상권 부활



□민·66·(현)태안군수

태안군수 가세로

□공약 :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광역 교통망 완성 ▲경쟁력 있는 태안경제 육성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선도도시 도약 ▲태안기업도시, 도심항공교통(UAM) 전진기지 육성 ▲누구나 찾고 싶은 「태안다움 휴양관광도시」 조성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자

“지금 바로 걷자에 가입하세요”

‘걷자’ 와 함께 걸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 함께 걸어 기쁨 두 배! - 가족, 친구와 함께 걸으면 즐거움도 커집니다.
- 걷는 만큼 포인트가 차곡차곡! - 건강을 챙기고 포인트도 쌓입니다.
- 기부 캠페인에 참여! - 모은 걸음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하루 활동량을 체크! - 걸어서 소모된 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어르신께는 인센티브! - 목표 걸음을 달성한 어르신께 건강상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걷자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충남 앞바다서 국제요트대회 개최

7월 20~24일 대천해수욕장서
보령해양미드박람회 연계 개최
17개국 120여 명 선수 참가

국내 첫 아시아세일링연맹 공인 요트 대회인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남 앞바다에서 열린다.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해천)는 5월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20일부터 24 일까지 5일간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 해수욕장 수역에서 진행된다.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보령국제 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보령해양미드박람회 조직위 등이 후

원한다.

대회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덴마크, 호주 등 전 세계 17개국 120여 명의 각국 대표급 선수가 참가해 그동안 길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경기는 J/70과 옵티미스트 2개 종목이 진행된다.

대형 세일링 요트인 킬보트를 이용하는 J/70 경기에는 10개국 40명이 출전한다.

딩기요트인 옵티미스트 종목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5세 미만의 11개국 선수 80여 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은 7월 22일 오후 5시, 폐회식 및 시상식은 7월 24일 오후 5시 해양미드박람회장 내 상설무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대회 부대행사로는 보령국제요트대회 흥보 구역과 서해바다 요트팀협대 등을 운영한다.

보령해양미드박람회 기간인 7월 16 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간 박람회장 내 해양레저 산업전시장에서 운영하는 흥보 구역에서는 박람회 관람객을 대상으로 요트 전시와 대회 흥보를 진행한다.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청소년들과 함께 대형 요트를 직접 운항해 서해의 독도라 불리는 격렬비열도 등 서해의 아름다운 섬을 탐방하는 요트팀협대와 입국하는 해외 선수·임원들에게 보령 석탄박물관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대회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책을 모색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외부인사 등의 교통, 숙박, 식음료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기동한다.

/해양정책과 041-635-4774

도정만평

설인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핵심 현안 담는다

道 국정과제 대응 전략보고회

충남도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핵심 현안을 담기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5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정과제 대응 전략 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는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한 각 부처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은 종괄 보고를 통해 ▲ 국가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통상 ▲농촌 ▲해양수산·어촌 ▲기후·환경 ▲문화 및 유산 등 7개 정책 분야 별로 국정과제를 분석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 거점과 지역 혁

신성장 플랫폼 구현 등 대응 과제를 도출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녹색경제 전환 ▲동네상권 활성화 및 로컬브랜드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도는 앞으로 도정 현안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대통령실, 중앙부처, 정당 등을 찾아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전달하고, 각 실국은 소관 부처에 도정 현안 반영 요청을 지속할 방침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12

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

6월 30일까지 일반·통역 분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조직위)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일반(행사장 안내, 질서 유지 등) ▲통역(영어·중국어·일본어) 2 개 분야 1일 127명(총 300여 명)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사명감

을 갖고 봉사에 적극 참여할 출·퇴근이 가능한 봉사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10월 7~23일 열리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장에서 진행을 돋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게 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2022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또는 계룡시자원봉사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접수처인 계룡시자원봉사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충남 계룡시 서금암1길 15, 2층), 팩스(042-841-0626), 전자우편(gyeryong1004@hanmail.net)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조직위 또는 센터(042-841-1365/042-840-2862)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042-840-3943

유흥식 대주교, 한국 4번째 추기경

논산 출신, 대전교구장 등 역임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인 유흥식 라자로(70·사진)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됐다.



라테라노대 교의신학과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현지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29일 바티칸 사도궁에서 유 대주교를 포함한 신임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유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이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유 신임 추기경은 1979년 이탈리아 로마

2005년부터 대전교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다. 신임 추기경 21명의 서임식을 겸한 교황 주재 추기경 회의는 오는 8월 27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이다.

/도정신문팀

기후위기 대응 지구 지키자

도,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

충남도는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6월 3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도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 하나의 지구,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주제로 이번 기념식을 준비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포럼 위원 위촉식,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유엔은 환경보호에 관한 전 세계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제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주제는 ‘단 하나의 지구’이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12

“일본 사람 되라는 학교에 가지 않겠습니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2) 3·1운동과 초등학교 자퇴



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덕산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보통학교의 일본인 교장 와타나베는 수업을 중단시키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마을 어른들이 일본 현병과 경찰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윤봉길은 중대한 결심을 하였다. 그는 부모님께 “저는 일본 사람 되라는 학교에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통학교를 자퇴하였다. 일본인 교장 밑에서 한국인 교사들이 자신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부모님은 배워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어린 윤봉길은 서당에서 배우겠다면서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보통학교를 자퇴한 윤봉길은 최은구가 설립한 서당에 들어가 그의 아들인 최병천 등과 함께 한학을 공부하였다. 최은구는 토지조사사업에 측량보조원으로 따라다니다가 1918년 시량리에 서당을 개설했는데 윤봉길은 그로부터 토지조사사업이 일제가 우리 땅을 수탈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었다.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아산중 하기팀이 헝가리를 하는 모습.



성환중 3학년 소이준(오른쪽 세 번째) 학생이 역도종목에서 3관왕을 했다.



은메달을 획득한 강경여자중학교 축구팀.

전국소년체전서 충남 선수들 대기록 달성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충남선수단 11년 만 최다 메달
금28, 은37, 동42 메달 획득
1201명의 땀방울 값진 성과로

충남선수단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07개 메달을 획득하며 11년 만에 최고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107개(금28개, 은37개, 동42개) 메달을 획득,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최다메달을 획득해 의미가

있다.

특히 역도종목에서 메달 17개(금9개, 은6개, 동2개)를 획득하며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기초종목인 육상(금4개, 은4개, 동7개), 수영(금1개, 은5개, 동9개)에서도

선전했으며, 아산중학교(남중) 하기팀은 대회 4연속 우승으로 충남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개최된 가운데 충남선수단은 36종목 1201

명이 참가했다. 임원을 제외한 선수규모는 경기(847명), 서울(811명)에 이어 충남(804명)이 전국 3번째 규모로,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 충남도와 충청남도체육회, 충남교육청이 협조했다.

/충남체육회 041-635-0070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결의

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보령국제요트대회 연계 홍보

충남도가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 실·국 및 기관 간 추진상황을 살피고 결의를 다졌다.

도는 5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는 홍보 17건, 안전 14건, 프로그램 23건 등 총 5개 분야 70건을 추진하며, 약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주요 세부 과제는 ▲2022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연계 홍보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 강화 ▲대중교통 편의 시설 개선 및 운송체계 구축 ▲제8회 환황해포럼 개최 ▲ 범도민 지원협의회 운영 등이다.

도는 조직위·보령시와 추진상황을

지속 공유하고 미비점을 점검·보완하는 등 총괄 지원부서인 해양수산국을 필두로 박람회 지원에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해양 신산업과 해양 머드 콘텐츠의 발전·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산업 박람회로, 전 세계 12만 명의 외국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제행사다.

행사는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를 주제로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보령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한다.

/해양정책과 041-635-4766

“충남 웹툰 상담소 운영합니다”

6~11월 온라인(ZOOM) 진행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창수)은 지역 웹툰 창작자, 기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웹툰 분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인 ‘충남 웹툰 상담소’를 운영한다.

충남 웹툰 상담소는 스토리, 작화, 플랫폼 계약, 지식재산권, 노무 등 웹툰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웹툰 창작자와 기업의 성

장을 돋기 위해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여성향 스토리(T그린 작가) ▲남성향 스토리(포르토 작가) ▲작화 및 배경(박종성 작가) ▲취·창업 및 플랫폼 계약(토리컴즈 송순규 대표) ▲지식재산권(윤형근 변리사) 등이다.

충남 웹툰 상담소는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모집은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이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2

‘지방은행 설립’ 560만 의지 모은다

11월까지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누리집 통해 온라인 서명 가능

충남도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충청권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560만 충청권 지역민의 의지를 모으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최근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의 지 확산을 위한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 공식 누리집(<http://ccbanks.onlinesign.kr>)을 개설했다.

100만 충청인 서명운동은 지역 자금 역내 선순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충청권 도·시민 대상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

립을 위해 충청권 4개 시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추진 중이다.

현재 도는 여론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680명 규모의 범도민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이며, 추진단은 도내 266개 단체를 중심으로 15개 시군과 협력해 지난달부터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해 서명하면 된다.

/경제소상공과 041-635-2214

이디야커피, 충남 생과일주스 출시

충남 생산 수박·토마토 활용

충남도와 이디야커피의 첫 상생 협업 결과물인 ‘제철 생과일주스’가 26일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도와 이디야커피는 ‘신선한 맛남 프로젝트’를 통해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토마토를 활용한 생과일주스 출시했다.

제철 생과일주스는 논산시와 부여군에서 공급하는 원재료들을 사용해 만들어진다.

도와 이디야커피는 앞으로 생딸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료를 개발하는 등 농산물 유통 상생협업을 지속해 신선하고 건강한 이미지로 전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이디야커피와 지속적



인 협업 통해 충남 농산물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판매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디야커피에 신선한 충남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유통과 041-635-4171

‘모심기’와 ‘모승끼’

이명재의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모심기, 모내기

“모심기 하닌 날은 학겨두 못 갔어.
일허야년니 집이서 보내주남?”
“하 가무니께 하지가 넘더락 모승끼
두 뭇 했지.”



6월의 충남엔 모심기가 한창이다. 못 자리에서 기른 모를 본 눈에 옮겨 심는 일을 ‘모를 낸다.’라고 하고, 모를 내어 심는 일을 충남에서는 ‘모심기’라고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서울말을 배워 ‘모내기’라고 하지만, 충남의 농사꾼들은 지금도 ‘모심기’를 한다.

충남사람들은 ‘ㄱ’ 앞에 오는 ‘자음’은 쉽게 ‘ㅇ’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모심기’는 [모싱끼]가 된다. ‘잠

근다’는 [장근대]가 되고, ‘웃기다’는 [욱끼다]가 되고, ‘옆구리’는 [역꾸리]가 된다. 이는 발음의 편리성을 꾀한 음운변화다.

첫 예문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전쟁 당시의 농촌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다. 손이 부족한 모심기철에는 아이들도 일손을 보태야 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이 급했다. 전쟁이 휘날리고 세상엔 배고픔이 들끓었다. 학교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정의로운 노동전환 이끌 특위 출범

선제적 노동전환 지원체계 구축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5월 31일 온양제일호텔에서 ‘노동전환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노동전환 특별위원회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 전환 및 선제적 노동 전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주요 수행 사업은 노동전환 선제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및 실태 조사, 캠페인과 토론회 등 지역 공동화 사업,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관계망 구축 등이다.

위원회는 연중 4~5회의 정기회의와 전환 관련 현안 발생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충남형 탄소중립 대한민국 선도

도, 탄소중립위원회 정기회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공개 예정
2045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

충남도는 5월 30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2년도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수립 중인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초안
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
자 마련했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충남'이며, 목표는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감축, 2045년 탄소중
립 실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
에너지, 연료 등 '청정한 전환' ▲미
래산업 육성 및 신기술 개발 등 '과감
한 혁신' 등을 제시했다.

현재 논의 중인 분과위 과제는 총
17건으로, 이는 지난 2월 도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과제 연구를 추진함에 따
라 발굴했다.

주요 과제는 ▲수소에너지 관계망
(네트워크) 구축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개념 정립 ▲탄산칼슘 제조 및
해수 수전해를 이용한 그린수소 제조
등이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연구 추진
상황과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기본계획 안을 검토·보완해 다음달
중 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
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발굴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7

제68회 백제문화제 포스터 공개

찬란한 백제문화 황금기 표현
옥외광고, 축제홍보 등 활용

(재)백제문화제재단(대표 신광섭)이
제68회 백제문화제 포스터를 공개했
다. 이번 포스터는 전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공모를 통해 접
수된 102개 작품 가운데 전문심사위원
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점, 입선 2점
등을 선정했다.

최우수 작품은 백제금동대향로의 향
연으로 피어난 찬란한 백제문화 유물·
유적을 노란색의 빛으로 상징화하여
노랑과 청색의 색감을 통한 백제문화
의 황금기를 표현했다.

제68회 백제문화제 공식 포스터로
선정된 최우수 작품은 현수막, 지하
철, 대중교통 등의 옥외광고와 전국
주요 축제 현장홍보 등에 활용할 계
획이다.

(재)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91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상세주소가 없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상세주소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구역
곰달래로 79,
도로명+건물번호
00동 00호
상세주소

상세주소가 없는 건물이 있다?



다가구주택, 원룸, 단독주택, 상가 건물 등 임대건물은
법률이 정하는 상세주소가 없습니다.

상세주소 신청은 누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도 부여 가능

상세주소 신청방법은?

신청
인터넷 접수
www.gov.kr



확인

www.juso.go.kr



상세주소가 왜 필요한가?



1. 주소체계에서 법정주소로 활용되어
2.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상세주소 부여결과 확인은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uso.go.kr)



소유자·임차인이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부·사업자등록부 등 공적 장부 주소의 일괄변경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CCTV 정비, 출입차단기 설치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회)와 충남
경찰청은 민·관·경 협동으로 도내 여
성안심귀갓길 내 안전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치안 불안요인을 제거했다.

이번 점검은 4월 11일부터 5월 20
일까지 도내 84개 여성안심귀갓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선 감시카메라(CCTV), 비상벨,

쏠라표지병, 안내판, 로고젝터 등 94
개 시설물을 보수했으며, 203곳에
LED 안내판, 원룸출입차단기, 쏠라
안심등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했다.

아울러 병법시설물 확충, 셈테드
(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
완료 등의 효과로 범죄가 감소한 관
리구역 12곳은 해제하고, 원룸·유형
시설 밀집지역, 112신고 다발지역 등
10곳은 신규 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041-635-5902

양식어가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도내 12개 어가 난방설비 지원

충남도는 도내 양식어가가 선호하는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
한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은 경유 보
일러를 대신하는 친환경 난방설비(히
트펌프) 설치를 지원해 양식어가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난방비가 줄어드는 만큼 양식장
내 환경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어 어
린 어류의 폐사율을 낮추고 어가소
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올해 당진·태안지역 어가 1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산자원과 041-635-4137

조선후기 제작 석조물 사라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 서산 김유경 묘의 석조물
(석등, 양석)

2003년 도난 2009년 도난등록
비지정문화재 도난 방지대책 절실

서산 김유경은 조선시대 좌첨판
을 지낸 경주 김씨 교관공파 9대
조이며, 그의 묘는 충청남도 서산
시 지곡면 연화리 마을 남쪽의
낮은 언덕에 조성되어 있다.

묘가 자리한 곳은 연화부수형
(蓮化浮水形)의 명당으로 알려져
있으며, 묘역에는 중국에서 들어
온 석재로 조성한 문인석(文人
石)과 석등(石燈), 망주석(望柱
石) 등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
었다. 하지만 이 석조유물 중 석
등과 양석 1쌍이 어느 날 사라졌다.
도난 시점은 2003년 10월로
추정되지만, 도난등록은 2009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
당기간 도난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라진 양석과 석등은 현재 비
지정문화재이나, 주변 지역 유적
과의 시기적, 지역적 유사성을 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
선후기 석조물 양식연구에 귀중
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
직까지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했

고, 소재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도난문화재의 경우, 장기
간 은닉 후 관심이 사라질 즈음
장물로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
어진다. 도난문화재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
켜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다
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야외 석조물의 도난
사건이 꽤 많은 편인데, 특히
CCTV나 감시가 소홀하여 비교
적 범행이 쉬운 석조문화재를 노
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남도에서는 1985년부터 공
식적으로만 약 60여 점의 문화재
가 도난되었으며, 비지정문화재
는 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도
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비지
정문화재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문화재 당국의 책임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김현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정종별 : 비지정문화재
- 도난일자 : 2003/10/05~19
- 도난장소 : 충남 서산시 지곡면
연화리 소재 연화봉 연화부수 대감
(김유경)묘소
- 시대 : 1600년대
- 도난등록일자 : 2009-09-29



호국보훈의 달 독서문화행사 ‘풍성’

충남도서관 6월 12~30일까지
공연, 강연, 전시 등 행사 운영

충남도서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로 되새기는 숭고한 나라 사랑’을 주제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와 성인 모두 분야별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공연, 강연, 전시 등 7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6월 12일부터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12일에는 ‘우리 땅 기차여행’의 저

자 한태희 작가를 초청해 어린이의 국토 사랑과 애향심을 높이는 특강을 진행한다.

14일은 홍성군립합창단이 ‘시와 꽃이 있는 음악도서관’을 주제로 도서관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펼친다. 합창단은 김소월의 시와 꽃 그림 영상이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했다.

16일과 23일에는 각각 책 읽어주는 사서 ‘계으름에 대한 찬양’과 사서고생 ‘오만과 편견’ 강연이 이어진다.

29일 도서관 문화교육동 강당에서는 민족시인이자 순국선열인 윤동주를 추

모하는 ‘시인, 동주’ 소리극 낭독회가 열릴 예정이다. 낭독회는 소설 ‘시인, 동주’를 각색한 소리극으로 전문 성우의 연기와 작품 해설을 통해 윤동주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6월의 역사를 테마로 6월의 역사기념일 관련 도서 북큐레이션이 14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서관(☎041-635-8000)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https://library.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서관 041-635-8067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설계 당선작 선정

원형 디자인 순환 의미 담겨
연수원 2024년 준공 목표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심사 결과, 누아건축사사무소의 응모작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문적인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교육 거점 역할을 할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의 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심사위원회는 탄소중립, 에너지 순환의 의미를 담은 원형 디자인을 통해 연수원의 정체성을 구현한 점과 실내·외를 연계한 입체적 공간 계획, 인공습지를 더한 하수정화시설 방식 등을 높이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누아건축사사무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을 갖게 됐다.

연수원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며, 전시 체험관(지상 2층/연면적 약 1500m²)과 캠핑지원센터(지상 1



탄소중립연수원 당선작

층/연면적 약 150m²), 캠핑장 등을 짓는다.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041-635-7549

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감염의 심목 신고·접수, 반출 금지 관리, 솔잎 흙파리 방제 등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에도 집중한다.

대책본부는 고령화로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나무 임가를 위해 항공 방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6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가동

8월까지 예찰 강화, 적기 방제

충남도는 도와 시군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대책본부)’를 구성·가동한다.

대책본부는 도청과 도 산림자원연

구소, 15개 시군 등 모두 17곳에 설치했다.

시군과 사업소에 예찰·방제단 51명을 배치, 산림 내외와 생활권 주변 공원 등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대책본부는 고령화로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나무 임가를 위해 항공 방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자원과 041-635-2576

이순신의 두 번째 백의종군(白衣從軍)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조정의 명령을 어겼다며 파직
이순신 임지로 가던 중 모친상
칠천량해전 패전 통제사 재임명

정유년(1597년) 1월 초에 일본군이 부산 앞바다로 침입해 올 것이라는 정보가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 요시라로부터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일본군의 선봉장 가토 기요 마사가 먼저 건너오니 이들만 막으면 전쟁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니시와 가토가 앙숙관계임을 알고 있는 조선 조정에서는 이순신으로 하여금 일본군의 도해를 차단하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순신은 일본군의 간계임을 알고 바로 출전하지 않았다. 사실상 출전해도 당시의 해상 환경과 수군의 작전능력을 고려할 때 일본군의 대규모 도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출전을 강요한 것이다.

결국 일본군은 1월 13일 부산 다



대포에 상륙하였고, 선조는 일본군의 도해를 막지 못한 이순신에게 책임을 물어서 통제사 직을 박탈하고 3월 4일 의금부에 투옥하였다. 선조는 이순신이 적을 치지 않아 나라를 등졌다고 하면서 사형집행을 원했으나 정탁을 비롯한 신료들의 탄원으로 석방하여 도원수 권을 휘하에서 백의종군하게 하였다.

이순신의 두 번째 백의종군은 4월 1일 출옥한 후부터 8월 3일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기까지 약 4개 월 동안이었는데, 경상도 조계의 도원수부로 이동하는 기간과 도원수부에서의 활동으로 대별된다.

이순신은 이동하던 중 아산에서 어머니의 부음을 받고는 간단한 장례만 치른 채 길을 떠나는 아픔을

가졌다. 연도에는 많은 관료들과 백성들이 나와 이순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위로하였다.

도원수부(현 합천 율곡면)에 도착한 후에는 주로 주요 지휘관과 소통하면서 군사·문여할을 하였으며, 둔전을 경영하는 한편 한산도의 수군 장수들과 소통하면서 수군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였다. 현실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미래의 직무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기간 가장 슬픈 일은 7월 16일에 있었던 칠천량해전 패전 소식이었다. 사망 하던 많은 부하 장졸들이 전사하고 함께 피땀 흘려 이룩했던 전선과 군기들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순신은 슬픔을 음미할 여유도 없이 도원수의 요청에 따라 수군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파직한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는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였다. 이순신의 두 번째 백의종군은 이순신의 생애에서 가장

슬픈 기간이었지만, 수군 사랑에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이 교훈으로 다가온다.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벼 드론직파 연시회
충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5월 26일 부여군 양화면 일원에서 스마트 ‘벼 드론직파’ 연시회를 개최했다. 연시회는 도 농기원과 농촌진흥청 관계자, 농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을 이용한 벼씨 파종과 관련 기술을 토의한 행사가 진행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62

작물 바이러스·세균 신속진단

농기센터에 진단키트 보급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원예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바이러스와 세균을 진단할 수 있는 간이 진단키트 9종 1204점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다.

보급된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칼라

병)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MNSV) 등 6종이다.

세균 진단키트는 풋마름병, 시들음병, 역병 등 3종이다.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73

서해에 대하 2000만 마리 방류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연안 수산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 연안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린 대하 20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지난달부터

인공 부화를 통해 생산·관리한 어린 대하로,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 등 5개 시군 연안에 방류했다.

기율쯤 체중 40g 내외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하는 만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767

도·건보공단 도민건강 ‘맞손’

걷기 앱 활용 암 검진 홍보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와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걷기’ 앱 가입자 수 증가 및 암 검진률 향상을 목표로 해당 기간 협력할 계획이다.

도는 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걷기 앱을 활용해 앱 내

배너 광고로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홍보하고 수검 인증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커뮤니티를 개설·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는 도내 국가 암 검진 대상자 121만 명을 대상으로 걷기 앱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57

도서관서 책 읽고 영화 보세요 충남도서관 웨이브온 서비스 개시

웨이브온 서비스는 충남도서관 대출회원으로 가입한 도민 누구나 도서관 2층 전자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웨이브온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이다.

/충남도서관 041-635-8065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충남도정

청양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확대 운행

군내 모든 택시 자율 이용
읍면사무소 구간 운행 추가

[청양]충남 청양군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수요응답형(DRT) 시스템을 적용한 행복택시를 확대 운행한다.

69개 마을 교통 취약 주민들에게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행복택시는 기존 수기운행일자 작성방식에서 핸드폰 앱을 활용한

NFC 교통카드 시스템을 적용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마을 지정택시만 이용 가능했으나 군내 모든 택시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기존 운행구간에 각 마을의 읍·면사무소 구간을 추가했다. 이에 더해 운행횟수를 마을별 30회에서 세대별 8회로 확대해 이용자 수요에 맞게 운행되도록 개선됐다. 이용객 자부담은 1500원이다.

이동연/청양신문



청양군 행복택시는 휴대폰 앱을 활용해 운영 투명성과 편의성을 확보했다.



“뻔한 장수 사진은 가라” 서산 내생애 봄날 프로젝트

[서산]한한 화보스타일 스냅사진 주인공은 89세 92세 할머니. 푸른 계절의 여왕도 오늘만은 고운 자태의 할머니들에게 아름다움을 양보한 날이다. 두 달 전 서산 ‘내생애 봄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난달 첫 촬영을 시작했다. 내생애 봄날 프로젝트 관계자는 “80 평생 열심히 살아오신 세월의 자태를 아름답게 남겨드리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오늘이 내 생애 봄날이라 할 만큼 절 이쁘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가, 메이크, 헤어아티스트, 의상 등 전문가들이 무료봉사로 함께 참여했다.

최미향/서산시대

“알고있지 아산사랑? 알려줄게 지구보호!”

아산봉사센터-아산고 정화 활동
탄소중립OX퀴즈 등 홍보 병행

[아산]아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1일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아산고등학교, 선문YSP와 함께 「2022 안녕! ‘알고있지 아산사랑? 알려줄게 지구보호!’ 함께 할게!」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선문YSP 단원 18명과 아산고등학교 재학생 3개 반(2학년 11반, 3학년 2반, 3학년 4반) 54명이 연계하여 총 72명이 활동했다.

참여 자원봉사자들은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5개조로 나누어져 탄소중립 흥보부스 운영(탄소중립 설명, 탄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와 아산고 학생들은 신정호 국민관광지 일대에서 탄소중립 홍보, 환경정화활동에 나섰다.

중립 실천스티커부착, 탄소중립 OX퀴즈활동 등),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선문YSP 소속 대학생들이 각

조별 대학생 리더로 활동하며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혜진/온양신문

보령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모집합니다

1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보령]충남 보령시는 저소득 및 청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촉진 및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10 일까지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100명을 모집한다.

대상 사업은 공공시설물 환경정화,

전통시장(시내) 방역 및 소독, 보령목재문화체험장 및 무궁화수목원 정비, 대천항 쓰레기수거 등 48개 사업이다.

근로 기간은 7월 4일부터 9월 23일 까지로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이다.

급여는 시간당 9160원으로 근무일에 한해 부대비 5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보령시민 중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인 가구는 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문의는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22)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보령시 제공

“치매 어르신 기억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예산치매안심센터, 어르신 대상 운동·공예 치료 인지재활 지원

[예산]예산군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8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억지켜드림’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기억지켜드림’은 치매안

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읍, 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가정에서 센터로의 이동을 돋는 송영 서비스를 시행한다.

올해 ‘찾아가는 기억지켜드림’은 인지재활 작업치료, 운동치료, 종이공예, 음악치료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남부권역(대흥·응

봉), 북부권역(신암·오가) 순으로 2개 월간(주 2회, 1일 2시간, 20회기)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소근육 발달을 위한 ‘공예교실’ ▲낙상 예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치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예산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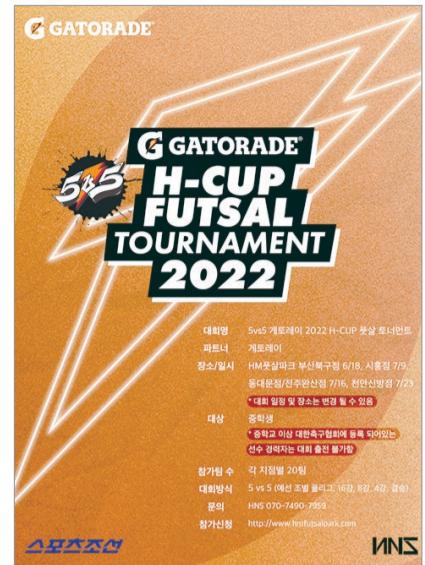
전국 중학생 풋살대회 열린다

7월 23일 천안서 지역예선 진행

[천안]2022 H-CUP 전국 중학생 풋살대회 예선전이 충남 천안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오는 18일부터 11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리게 되며, 7월 23일에는 품플러스 천안신방점 옥상에 마련된 HM 풋살파크 천안신방점(대회 전까지 공사완료 예정)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지난달 지난 25일부터 HM 풋살파크 홈페이지에서 시작됐으며, 천안을 비롯해 부산, 시흥, 서울, 전주 등에서 지역예선을 펼친 후 9월 24일 HM 풋살파크 시흥점에서 대망의 전국 챔피언십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학교 재학생에 한하며, 대한축구협



전국 중학생 풋살대회 포스터

회 선수등록 경험이 있는 엘리트 축구선수 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

이현자/천안신문

“꼬마 농부 키워요”…공주 꼬마텃밭 인기

치유정원 8800㎡에 9개 운영
농부체험·농경문화 학습의 장

양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4월 총 10개 어린이집, 191명의 꼬마 농부를 선정했다.

꼬마농부들은 방울토마토·상추 모종을 직접 식재하고 물을 주는 등 주기적으로 텃밭을 찾아 농부체험을 하고 있다. 모종 식재는 물론 자연학습 치유정원, 농업전시관, 영농재 등 농업기술센터 내 부대시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농경문화를 체험·학습하는 유익한 시간도 함께 보내고 있다.

/공주시 제공



아이들이 자연학습 치유정원 꼬마텃밭에서 모종 식재 체험을 하고 있다.

‘산나물 중 최고’ 청양 엄나무순

신경·요통 관절염, 당뇨 효능

[청양]봄나물 중 최고 인기 품목인 엄나무순이 충남 청양 지역에서 활발하게 직거래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청양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은골구 기자마을, HSDC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엄나무순 직거래 판매를 돋고 있다.

엄나무순은 음나무, 개두릅으로도 불린다. 한방에서는 껍질을 말린 것

을 해동피, 뿌리 건조한 것을 해동수근이라 불리며 신경통, 요통, 관절염,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은 약리실험에서 중추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다.

판매가격은 kg당 3만 원 이상이며, 최근에는 관리가 편한 가시 없는 민음나무가 보급돼 수확이 한층 수월하다.

이관용/청양신문사



엄나무순 농가에서 수확 및 손질작업을 하고 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산을 오르다

내포칼럼



김동회
호서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초빙교수

나를 훈련하고 연마하며 마음의 그릇을 채우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 산행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선호한 수단이며 인간의 삶과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우선, 산행은 오로지 내가 두 발로 걸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넘어지고 부딪치거나 고통도 오로지 혼자 짊어져야 한다. 한편 내 몸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양육과 훈육기간이 끝나면 내가 설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산은 높으면 높은 데로 낮으면 낮은 데로 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다. 낮아도 가파르고 힘든 구간은 당연히 있고 높아도 일정 고지에 달하면 능선 길이 나타나 가볍게 걷게 된다.

사람도 각자 삶의 모습이 다르다. 성공 또는 실패한 삶도 각자 주어진 뜻을 살아낸 결과다. 시련에 좌절하지 말고 돈이나 권세에 자만해서도 안된다.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뜻한 목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산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 높고 낮음을 떠나 정상에 도달하여 사방을 조망하고 잠시의 휴식시간을 취하면 내려가야 한다. 좋은 경치나 휴식도 오래 정상에 머물러 있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은 어렵사리 한 출세나 움켜쥔 돈도 어느 순간에는 내려놔야 한다. 세월이 흐르면 너 나 없이 나이 들게 되며 젊은이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젊음과 영광은 칠나에 불과하니 늘 겸손과 배려에 성실해야 한다.

오름과 내림의 산행은 돌발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한다. 부지런히 힘들여 오르다 보면 다리에 경련이 발생하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

도 한다. 특히 힘 빠진 다리로 내려가면 부상 당하기 십상이고 때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인간은 우여곡절도 사연도 많이 겪으며 살아간다. 스스로 파멸시키기도 하고 분연히 뜻을 성취하기도 한다. 나를 다스릴 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

어떤 산행도 매번 어렵고 육신의 편안함보다는 힘들고 고단함이 당연하다.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숨이 턱에 걸리고 한 발도 내딛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특히 경사가 심한 하산 길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삶은 행복이나 안락함도 있지만, 고통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불행도 행복도 비슷하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한다.

특히 산은 정상에 가까이 갈수록 경사가 심하고 흐르는 땀방울에 눈뜨기도 힘들어지고 거친 숨결과 혈떡임에 주저앉고만 싶다. 그러나 이 칠나의 유혹을 극복해야만 웃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때론 끝이 보이지 않아 일체의 것을 던져버리고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사람은 이 순간을 극복하고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산행은 내 삶을 반추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래서 안락함보다는 육신의 고달픔과 고통이 따르는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산을 찾게 된다. 또한 건강한 육신을 만드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날로 녹음이 짙어지는 이 땅의 산들을 오르며 정신과 육체 균력을 저축할 수 있는 축복을 도민 모두가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마음을 채우는 방법, 산행
인간 삶의 모습과 닮아있어

스스로 짐을 지고 견뎌내고
'오르락 내리락' 따라 흐르며
주어진 소임 다하며 나아가

산 오르며 심신의 힘 기르고
내 삶의 모습 곱씹어 봐야

인재전쟁 시대에 살아남는 법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디지털 전환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자, 인재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함께 경쟁하는 건 기본이고, 아젠 산업의 경계도 넘어 자율주행차를 두고 전통적인 자동차회사와 인터넷 기업이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러한 시대에는 승자독식이 심해지고, 승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비즈니스에 적용시켜 나갈 인재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거기에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현실 세계가 발전하면서 세계 어디에 있어도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특히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들도 세계를 무대로 서로 경쟁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

인재전쟁은 점점 전 세계에 걸쳐 치열해지는데 우리나라라는 급속히 인구감소시대로 다가가고 있다. 통계청(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1970년 수준까지 떨

어질 전망이다. 우리 주변에서 적절한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온다.

인재전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 중심으로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인재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보통은 인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인재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 등 교육기관에 투자하고 인재를 양적으로 늘리는 일에 집중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정책적 접근이 쉽고 인재가 늘어나면 어디든 활약할 것이라는 믿음이, 값싸고 우수한 인재의 공급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우리나라의 성공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재전쟁시대는 이렇게 인재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공급과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유인이 없어지고, 인건비는 낮아지지만 그 대가로 좋은 인재는 절대로 오지 않는 일자리 혹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계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일이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의식이 충만한 세대가 중심이 되는 미래 인재전쟁시대에는 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끌려 올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뭉쳐 투자하고 어디에서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정한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 이러한 산업을 이끌 인재가 어떤 것을 바라고 어떻게 성장해나갈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학교도 나서서 해야 하는 시대이다. 인재가 매력을 느끼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토대, 계속해서 성장해나갈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같이 만들어가는 전정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과 투자의 변화가 절실하다.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장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

무상이 판치는 세상...뒷감당은 누가?

생생현장리포트



김광섭
특급뉴스 편집국장

금 교육', '세금 급식', '세금 교복', '세금 버스', '세금 보육', '세금 우유'… 이렇게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씀씀이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왜곡시켜가며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게 할까? 유권자가 무상 즉 '공짜'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을 정도다. 일단 당선되고 봄에 좋은(?) 정치인들이 이를 모를 리가 없고, 이를 잘 활용한다.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무상이 정말 공짜인 줄 착각하는 국민을 그럴듯하게 기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 안타깝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언어의 연금술로 위장한 사이비(似而非) 단어에 혼란되며 안 된다. 그러자면 유권자 스스로가 현명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꼽씹어 보고 그 정책에 따른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상에 '무상(無償)'은 없다. '무명(無名)'의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무상(無償)'이 두렵다. '무상(無償)'의 뒷감당을 오로지 내가, 아니면, 내 자식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는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들을 마치 자기 돈으로 그냥 해 주는 것처럼 '무상(無償)'이라는 가짜단어를 남발하고 있다.

무책임의, 위장술의 극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상(無償)' 대신에 '세금(稅金)'이라고 써야 한다. '세

이정록 시인의 서랍

시론

천편일률(千篇一律)이라고
머리맡에 써놓았다.

천권을 읽어야
시 한편 온다.

편지봉투에 풀칠하듯
한줄 더 봉한다.

천편을 써야
겨우 가락 하나 얻는다.

이율배반(二律背反),
이천편을 쓰면
등 뒤에 눈을 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정비

등단한 지 벌써 삼십 년이 넘었다. 책도 서른 권이 나왔다. 책이 나올 때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빼뜨리고, 이만저만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비용과 노동도 문제지만, 그동안 만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내 책을 부탁드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근무처 재활용창고 박스 더미 속에 끼어 있었는데 언뜻 눈에 익은 글씨가 보였다. 나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속지를 살짝 뜯어냈다. 잘못하면 내 책 한 권을 얻은 대가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가슴이 엇박자로 쿵쾅거렸고 기분이 며칠 편하지 않

았다.

지난겨울엔 집 앞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나의 시우화집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한 이유』란 책을 만났다. 반가움도 잠시 속표지에 내 서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얼른 덮어야 마땅한데 어찌다 보니 다 보고야 말았다. 그곳에는 누나와 매형의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었다. 매형은 장애인후원회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마 이 책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기증을 한 것이라. 서명해서 건넨 책이 전혀 상처 없이 꽂을 피우는 것을 나는 거기에서 보았다. 조용히 내 이름 석 자를 어루만진 뒤 서가의 좋은 자리에 꽂아두고 나왔다.

천편일률이란 “여러 시문(詩文)의 글귀가 모두 한결같이 비슷비슷함”을 경계하는 말이다. 내 시가 죽은 시인인가? 살아 펼떡이는 시인인가? 알아보려면 최소한 천 편의 시를 써야 한다. 시집 한 권에 예순 편쯤 싣는다고 어림해보면 스물다섯 권을 분량을 습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도식적인 틀을 깨부수고 자유로운 가락 하나를 얻는다. 이천 편쯤 써야만 등에도 시안(詩眼)이 생긴다.



이정록 시인

해미읍성·천리포수목원 안심하고 방문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안심관광지로 선정

친환경·안전 우수, 역사·생태관광 메카

[서산·태안]충남 서산의 해미읍성, 베드랜드와 태안의 천리포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의 '2022년도 안심 관광지'로 선정됐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 해미읍성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산베드랜드는 신규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평성으로,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등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한 해미국제성지가 인근에 있어 함께 즐길 수 있다.

서산베드랜드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천수만을 보전, 관리 중인 철새생태공원이다.



서산 해미읍성 전경

가족 단위 생태관광이 가능하고 숲생태 학습관, 숲속 놀이터, 철새 전시관, 기러기 관찰대, 4D 영상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1세대 수목원' 태안군 천리포수목원은 고(故) 민병갈 박사가 1962년부터 정성으로 일궈낸 수목원으로,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산시·태안군 제공

임립미술관, 제23회 향토작가초대전 개최

오는 23일까지 'Relax with Art' 주제로 평면미술·조각·서양·한국화 작가 69명 참여

[공주]임립미술관은 오는 23일까지 제23회 향토작가초대전 'Relax with Art'를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은 특별전시관에서 서양화, 한국화, 조소, 공예 등 4개 분야 총 69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된다.

충청지역 미술 상황과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충청지역 미술에 대하여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미술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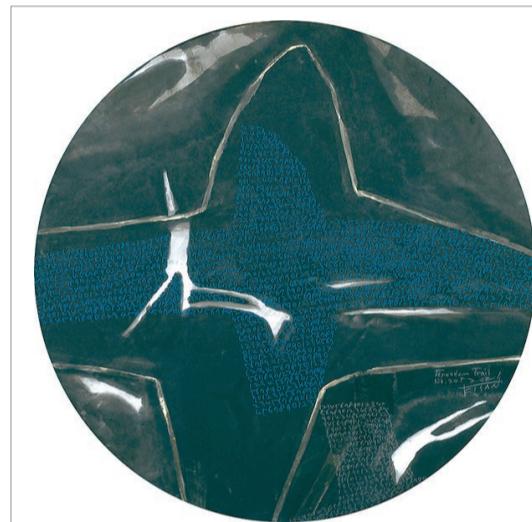
특히 이번 'Relax with Art'는 다양한 평면미술과 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며 예술을 통한 삶의 치유에 대하여 가장 중점을 두며 진행된다.

또한 임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전시 내용을 온라인 VR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감상할 수 있다.

비대면 온라인 전시 감상뿐만 아니라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하여 일반관람객들도 작가와 자유롭게 소통하며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문의는 임립미술관(☎041-856-7749)으로 하면 된다.

신용희/금강뉴스



Freedom Trail 245(정명희 作·94.5x91 cm, 한지에 먹, 2021)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시

가숙진 작가, 캘리그라피 '다시 바람꽃' 개최
당진 '갤러리 늘꿈' 서 오는 7월 1일까지

[당진]캘리그라피 가숙진 작가가 당진 '갤러리 늘꿈'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다시 바람꽃으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백 년을 이어오는 기와와 나무, 도자기 등 색다른 소재 위에 잔잔한 꽃들과 캘리그라피가 콜라보로 새겨져 작품 한점마다

다 작가의 섬세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가숙진 작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된 것을 보면 살아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아픔을 느껴 그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나무에 옷을 칠하고 그 위에 캘리그라피를 넣어 그리움을 스며들게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시는 가숙진 작가의 ▲들꽃-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소유가 아닌 빈 마음으로 등 44점의 작품이



가숙진 작가가 기와 위에 꽃을 그려 넣고 있다

선보이고 있다.

최미향/서산시대

호국 충혼의 성지 예산 수당 고택

윤성희의 만감萬感

이남규 선생, 을미사변 후 벼슬 버리고
홍주의병장 민종식과 재봉기 약속한 곳
죽음으로 일제 회유 거부한 시대의 선비

예산군 대술면 상항리와 방산리를 이어주는 상행방산로. 그 중간 지점에 있는 한 마을 입구의 안내판이 눈길을 끈다. '옛 한갓골 선비 마을'.

수당 이남규 고택과 기념관이 지척에 있어 선비마을이라는 안내가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것 같다. 수당의 고택이기는 하되 이 집을 짓고 경영한 이는 그의 10대조인 이구의 유부인 전주 이씨다. 스무 살에 청상과부가 된 부인은 1637년에 시조부 이산해의 묘소 가까운 이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남편 없는 가계를 일으켰다.

'튼묘' 자형의 안채와 뒤로 물러나온 서편에

'한 일(一)'자로 서 있는 가옥구조가 특이하다. 이 같은 구조와 배치를 주도한 사람은 부인 이씨였다. 숙부인 이씨는 그로부터 270년이 지난 후대에, 이 집 사랑채에서 한국의 근현대사와 가족사가 질긴 비극의 씨줄과 날줄로 만나 엮이게 될 줄 예감이나 하였을까.

을미사변을 겪은 1895년, 수당 이남규(1855~1907)는 영흥부사를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수당은 이 집에서 홍주의병장인 민종식 등과 의병 재봉기를 밀약하고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 일로 수당은 체포와 구금의 긴 터널에 갇히게 되었다.

1907년 9월, 수당이 기마대에 불집혀 압송될 때 아들 충구가 따라나섰다. 그리고 지금의 송악면 외암리 595-136번지 온양천변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다. '사가살, 불가욕(土可殺 不可辱·선비는 죽일 수 있으되 욕보일 수는 없다). 이 밀로 회유를 거부하던 부자를 일제가 무참히 살해하고 만 것이다.

열세 살에 조부와 부친의 참변을 겪은 손자



예산 수당 고택 전경

승복 또한 러시아 연해주와 북만주를 떠돌며 독립지사 이동녕, 이회영 등과 함께 협난한 독립의 깃발을 펼쳤다. 6.25 당시 해병대 장교로 입대한 증손자 장원은 1951년 원산전투에서 산화했다. 4대에 걸친 호국 공훈 가족의 탄생이었다. 이남규, 충구, 승복, 장원의 4대 가계가 모두 국립묘지에 묻힌 이 특별한 수당가의 내력 앞에 6월을 맞는 마음이 숙연해진다.

/윤성희 문학평론가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오는 9~11일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 무료 상영

[천안]서울독립영화제 순회상영전 '인디피크닉 2022 인(in) 천안'이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6월 9~11일 열린다.

2021년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을 무료로 상영하는 이번 행사는 총 6개 단편 섹션으로 구성된 상영회는 지난해 영화제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 23개 작품을 선보인다.

대상 수상작인 '보속'부터 최우수 단편상에 빛나는 '씨티백', 우수 단편상과 CGK촬영상을 동시에 거머쥔 '불모지', 조민경, 임선우 두 배우에게 독립스타상을 안겨 준 '퇴직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관객상을 받은 '텐트틴트', 독립영화 매칭 프로젝트 네스트링크의 배급지원작으로 선정된 '나랑 아니면'을 포함해 '두 여자', '쓰는 일', '어디에도 없는 시간' 등을 각 섹션 주제에 맞게 관람할 수 있다.

/천안시 제공

2022 김남수 개인전 카오스-運

천연재료 사용 한국적 이미지 물씬

[공주]이미정갤러리에서는 2022 공주 갤러리 주간을 맞아 오는 6월 12일까지 '김남수 개인전 카오스-運' 전을 개최한다.

조각과 회화가 만나 또 다른 예술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카오스-運' 전시회는 천연재료(들풀과 흙)를 이용하여 염색한 한지(죽)를 사용한 현대적인 감성의 작품으로, 한국적인 이미지가 물씬 풍긴다.

김남수 작가는 원시적인 상태 즉 혼돈과 무질서 속에 숨어있는 질서를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예측이 불가한 현상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미정 관장은 "10여 년 동안 작가의 고통과 노력을 기울인 작가의 작품이 주는 기쁨이 감상자에게 오롯이 전해지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김광섭/특급뉴스

태안군, 6월 '건강 걷기 릴레이' 운영

100명 대상 매주 화요일 5km 코스

[태안]충남 태안군이 군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회 25명의 참여자가 한데 모여 약 5km 코스(1시간 30분 소요)를 걷는 것으로, 오랜 시간 야외활동을 하지 못한 군민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주 화요일 건강행태군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이 필요한 일반 군민(6월 7일), 노년층(6월 14일), 체중조절 시도자, 주부, 임산부(6월 21일), 직장인(6월 28일) 등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매회 25명씩 총 100명으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의료원에서 오전 9시 30분 출발해 태안종합운동장을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간식이 제공되며, 군은 스포츠지도사와 물리치료사를 투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군 보건의료원(☎041-671-5351)으로 하면 된다.

/태안군 제공

충남도정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잇다

발행인 충청남도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 소 충남 홍성군 홍복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당진서 한국살이 배운 다문화가족… “이제는 내가 도와요”

당진 하지영 베트남 통역사·이선아 이중언어코치
국제결혼으로 한국 들어와 ‘후배 다문화가족’ 도와

[당진] 필리핀 출신의 이선아(33) 씨와 베트남 출신 하지영(31) 씨는 결혼하면서 당진으로 이주했다. 처음 당진에 자리 잡으면서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았다.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살이를 이어온 이들은 현재 자신처럼 한

국의 삶이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이 씨는 27세에 당진에 발을 들이자마자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았다. 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필리핀 자조모임 활동을 하며 교류를 넓혔다. 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당진에 적응해갔고 현재는 두 아이를 둔 당진시민이다.

이후 선아 씨는 4년간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어린이집, 학교를 방문해 필리핀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올해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다문화갖고 자녀가 부모 모두와 자연스레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이중언어코치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선아 씨는 필리핀을 비롯해 베트남, 태국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활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베트남 통·번역사도 활동한다. 그중 하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베트남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다.

지영 씨도 2010년 결혼 후 2011년에 당진에 왔다. 지영 씨는 “일주일에 3~4번은 센터를 오갔



하지영 베트남 통·번역사, 이선아 이중언어코치

다”며 “센터가 나의 두 번째 집”이라고 말했다. 당진생활에 적응해가자 지영 씨는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었다. 지영 씨는 통번역사를 구하는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력서를 냈고 면접까지 거쳐 채용됐다.

지영 씨는 통번역사로서 상담 통역, 부부통역, 서류 번역 등의 일을 한다. 또한 자조모임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홍보 업무도 하고 있다. SNS에 센터 소식을 게시하기도 하고, 당진지역의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상자들에게 전하기도 한다.

선아 씨와 지영 씨는 과거 센터를 이용하던 대상자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됐다. 이들은 각자 맡은 일을 하면서 대상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지영 씨는 “내가 이렇게 오래 일할 줄 몰랐다”면서 “금방 질려할 줄 알았는데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이어 “통번역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들이 ‘고맙다’고 말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임아연/당진시대

안광문 산림조합장, 대통령상 표창 수상

산림사업 확대로 일자리 창출
나무 나눠주기 등 지역사회 공헌



서천군산림조합 안광문 조합장(원쪽)

[서천] 충남 서천군산림조합 안광문 조합장이 임업·산림사업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안 조합장은 지난 1978년 1월 산림조합에 입사한 뒤 24년간 근무하다, 2005년 11월에 서천군산림조합장에 당선돼 2015년 3월까지 조합장에 재임했다. 4년의 공백기를 걸쳐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조합장에 당선됐다.

안광문 조합장의 수상배경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의 확대로 지역 내 임업인들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 ▲산주·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 ▲서천군산림조합 특화사업을 통한 표고재배 지술지도의 장 마련 등의 업적이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합원과 지역주민에게 나무 나눠주기, 불우이웃돕기 등 기부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점도 이번 수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문 조합장은 “충남에서 가장 산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임업을 위해 애쓰시는 서천 모든 산주·임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주·임업인들과 함께 더불어 건실한 서천군산림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과 함께 포부를 밝혔다.

/서천군 제공

1년 안 된 대덕초 배구부, 전국대회 준우승

처음 출전한 협회장기대회서
결승전 듀스 접전 끝 은메달

[당진] 창단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덕초등학교 배구부가 처음 출전한 2022 대한민국배구협회장기 전국유소년배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5~6학년 학생 7명(김동건·최정호·배성우·박건우·최시온·이재한)이 참가했다.

대덕초는 예선에서 2승을 거두며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대덕초 배구부는 홍성 홍남초를 2-0으로 격파했다. 특히 대덕초 배구부는

이번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상대 팀을 2-0으로 이기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 대덕초 배구부는 서천군체육회에게 1-2로 석패하며 준우승을 거뒀다. 권해림 코치는 “결승전 경기에서 대덕초등학교가 초반에 지고 있다가 점점 상대 팀과의 득점 차를 줄이면서 듀스까지 이뤄냈다”며 “첫 대회라 많이 떨렸을 텐데 학생들이 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주장 배성우(13) 선수는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준우승까지 해 기뻤어요. 다음 대회에서는 꼭 1등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임아연/당진시대



대덕초 배구부, 원쪽부터 김동건(초5), 최정호(초5), 배성우(초6), 박건우(초6), 최시온(초6), 이재한(초5) 학생



조기 건조장, 칠나의 순간을 포착하다

[서천] 서림사진동호회 김수곤 회장이 제40회 대한민국사진대전에서 ‘조기 건조장’을 출품해 입선했다.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서천군지부장으로 활동하는 김 작가는 지난 20년 간 조류사진을 비롯해 풍경 사진 등에 남다른 감각을 보여 왔다. 그는 “대한민국사진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회에서 입선에 이름을 옮려 기쁘다”고 말했다.

김장환/서천신문사

서산 유소년승마단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장애물 부문1위, 마장마술 3위

[서산] 충남 서산시 유소년 승마단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8~29일 경북 구미시승마장에서 개최돼 전국의 승마 꿈나무들이 기량을 펼쳤다.

경기 결과 장애물비월경기에서 서해승마클럽 소속 조완철 학생이 1위, 마장마술에서 3위를 차지해 서산시 유소년승마단의 위상을 드높였다. 서산시 유소년 승마단은 지난 2017년 서해승마클럽 창단 이후 여러 승마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서산시에서는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사업으로 교육비용, 대회참가비용, 말 관리비 등을 지원하여 승마 유망주들을 양성하고 있다.

서산시 관계자는 “전국 소년체전에 참가하여



승마대회에서 입상한 1위 조완철(뒷줄 가운데), 3위 홍채희 선수(오른쪽 첫 번째)

우수한 성적을 거둔 유소년 승마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유소년 승마단원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산시 제공

성평등 언어 이렇게 사용하세요

제공/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성차별 단어	성평등 단어	제안 이유
그녀	그	여성을 대명사로 지칠 때, ‘그’로 사용
여직원	직원	“나는 여씨가 아닙니다” 직업 등 앞에 붙이는 ‘여’를 빼기

● 슬로건 : 단어 하나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상임위원회로 알아보는 제11대 후반기 의회 결산록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조직된 상설위원회다. 충청남도의회 전문분야별로 총 7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가오는 7월 제12대 충청남도의회 개원에 앞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도민의 민생을 돌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제11대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 결산특집을 마련했다. 더 행복한 충남,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효율적인 의회 운영 도모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도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의정 앞장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관 기관은 의회 사무처로, 사무처 업무 전반을 다루며 의회 조례와 규칙을 합리적으로 해결,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간 운영위는 심사 120건, 협의 91건 등 총 211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 운영 의사일정 작성과 변경 협의, 건의안과 결의안 등 본회의 심의 안건 사전협의로 의회가 원

활하게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로 올바른 한글 사용에 솔선수범해 도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관행적으로 남발되던 일본어 투 용어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외래어 등의 행정용어를 개선, 도민 눈높이에 맞춰나감으로써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향상했다. 또 강도 높은 행정감사로 의회 사무처 역할 재

정립을 요구, 예산 낭비 없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국시도의회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를 요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권한·책임 강화에 앞장섰다. 또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지방 이양 촉구로 도민의 행복한 삶 영위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운영위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정 워크숍, 의정활동 특강을 통해 업무 시 필요한 소통방안을 청렴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색해가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그 중심역할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 도민 삶과 밀접한 정책 해결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지역공동체와 함께 더 행복한 충남 건설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는 충남도 행정 정책을 총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미래 먹을거리 창출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해 있다. 소관 기관은 공보관, 데이터담당관, 기획조정실, 경제실, 미래산업국, 충남도립대학교가 있다.

그간 기경위는 조례 84건을 제·개정했으며, 32건의 건의·결의안을 통해 지방정책이 도민 생활에 밀접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총 2회 29개 기관 344

건의 행정사무감사, 121건의 도정질문·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제언에 앞장섰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토론회 10회를 개최했으며, 9개의 연구모임을 발족해 살아 숨 쉬는 의정 정책개발에 앞장섰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신조를 유념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 도민을 살피

고 정책을 발굴했다. 충남형 착한 배달앱 ‘소문난 삽’을 오픈, 전국 최저의 수수료 책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맺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꿈비채(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충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이외에도 국가의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 발맞춰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지역민에 대한 피해를 지원했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 제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조례 표창을 받기도 했다.

■ 도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는 ‘행정문화위원회’

문화와 삶이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 만들어가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화)는 충남도 조직에 대한 인사·감사, 청년지원, 자치경찰,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 행정업무 지원·견제의 역할을 통해 도민 편의 증진과 권리향상에 앞장서고 있다. 소관 기관은 자치행정국, 청년공동체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충남도서관,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행문화는 조례 제·개정 119건, 건의·결의안 10건, 5분발언·도정질

문 62건, 27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206건,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14건 등 활성화 활동을 펼쳐왔다. 또 행정과 문화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로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계획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맞춰 충남에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의 기초를 마련했다. 또 저출산, 지역 인구 소멸

등 위기 극복과 도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 기본조례, 청년 창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청년 복지’ 등의 조례로 청년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집중했다.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견의안 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내포신도시에



대학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아동·여성·장애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등 이동의 자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 묵묵히 숨은 조력 역할 해온 ‘복지환경위원회’

내실 다지며 도민의 삶 보듬는데 충실

복지환경위원회(이하 복환위)는 제11대 의회 후반기 들어 신설된 상임위로, 그 특성상 외형적 성장에 기여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관 기관은 도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산보건복지실,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4개 실국원, 4개 의료원(천안·서산·공주·홍성),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연구원, 청소년진흥원 등 7개 출연기관 업무를 담당한다.

그동안 복환위는 조례안 71건, 동의안 12건, 예·결산안 21건을 처리했다. 또 건의·결의안 12건, 5분발언·도정질문 36건 등 총 150여 건의 의안을 해결했다.

복환위가 출범한 2020년 7월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던 시기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칭궐로 그 전파력만큼 사회 양극화에 기속도를 불러왔으며, 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

웃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이에 복환위는 코로나19로 허물어진 도민의 삶을 보듬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활동했다. 도의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며, 지난 2년간 도민의 뒤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 예방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물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충남 만들기에 일조했다. 비록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숨은 일꾼으로 그 역할에 충실히 면서, 도민이 공감하는 보건·복지·환경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기해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별 주요 활동

■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행자 ‘농수산해양위원회’

코로나 이후 시대 맞는 정책추진 힘써

농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수해위)는 도내 농·어촌, 해양 관련 예산과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농수산업이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으로 활발한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농림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가 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으로는 조례 제·개정 53건, 동의안 5건, 건의·결의안 12건, 도정질문·5분발언 70건 등 총 140여 건이 있다.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됐고, 농어업축산물 소비 패턴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대면접촉을 꺼리게 됨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크게 늘었고, 이에 지난 2년간은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빠른 변화가 요구된 시기였다.

이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한 농수해위는 고령화되고 낙후된 시설 등으로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농어업 환경 개선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 근로자 지원제도 확대로 고질적인 농어업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에도 힘쓰는 등 농어업인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왔다.

‘친환경 학교급식, 자연 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 등 조례 제·개정으로



도내 농수축산물 소비율 증가와 농어 정원 선정을 위한 법령 제정, 금강하민 소득증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 생태 복원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일조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 촉구했다.

■ 도민의 생활과 안전 지키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 피해 없도록 예방을 최우선 과제 삼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이하 안전소위)는 도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소관 기관은 도 재난안전실,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소방서, 교통연수원 업무를 담당한다.

안전소위는 그동안 조례 47건, 결의안 12건, 규칙과 건의 12건에 이른다. 이외에 예결산 22건, 도정질문·5분발언 45건 등 총 138건의 안건을 해결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

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 취약도로 선형 개선 등 교통사고 줄이기,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했다. 또 SOC 건설, 선진 교통문화를 위한 교육연수원 운영, 중소도시 공동화 해결, 경제 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와 교육여건을 개선해왔다.

특히 환자 격리와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119 전담 구급대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켜왔다. 신속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SOC 여건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또 동양 최고의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통해 서해안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여는 등 선형 개선으로 사통팔달 충남을 만드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외에 소방 인력과 장비확충으로 도민 안전 서비스도 개설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난 현장에서 묵묵히 도민의 안전을 지켜온 소방 공무원을 위해 소방 인력을 증원하고



청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최고의 안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한 대기, 오지에서도 신속하게 24시간 전문 구조·구급대원의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충남교육 백년대계 세워가는 ‘교육위원회’

미래역량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주력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도민과 더불어 충남교육의 변화를 끌어내고 발전하는 교육정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소관 기관으로는 충남교육청(본청)과 14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 기관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42건, 동의안 26건, 예·결산기금 21건, 건의·결의안 13건, 도정질문·5분발언 29건 등 총 131건이 있다. 교육위는 수준 높은 공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개인의 학

습 능력 향상은 물론 충남교육 발전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위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금융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등으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시대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

고 중단 없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표로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 맞춘 일관되고 꾸준한 교육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학력 보장·향상,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을 통해 교육의 공정 기능을 확대해왔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충남 교육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는 물론 교육수



요자의 의견을 수렴 현장과 소통하는 시하고, 배움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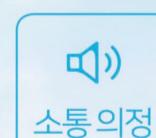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충청남도의회”가 만들어 갑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가치

보령해양 2022 머드 박람회

7.16
~
8.15

BORYEONG SEA MUD EXHIBITION

주최 충청남도 보령시 주관 (재)보령해양머드박람회조직위원회

후원 해양수산부

개최기간

2022. 7. 16.(토) ~ 8. 15.(월) (31일간)

개최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신륵동 2282 (주행사장) 대천해수욕장 일원

프로그램



이용요금

구분	입장요금(원)		적용범위
	현장요금	예매요금	
보통권	일반	12,000	9,000
	청소년	9,000	7,000
	어린이	6,000	5,000
단체 할인권	일반	9,000	-
	청소년	7,000	-
	어린이	5,000	-

무료입장

- 일반 : 만 19세~64세
- 청소년 : 만 13세~18세
- 어린이 : 만 4세~12세

- 단체할인
- 내국인 : 예매 및 당일판매 20명 이상
- 외국인 : 예매 및 당일판매 10명 이상

- 특별할인(인원에 상관없이 할인)
- 기타 : 만 65세~74세
- 보령시민(주민등록기준)

- 국가(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 만 75세 이상인 자
- 만 4세 미만 아동, 공무 수행자,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 단체 인솔자(20명 기준 1인), 단체관람 유치여행사 가이드 1인
- 학교단체 인솔 교사

사전예매 이벤트

약 20% 할인

오픈일~22년 7월 15일 까지

일반 9,000원 청소년 7,000원 어린이 5,000원



입장권 구매 QR

행사장 운영안내 041)930-2842 입장권 예매 041)930-2831